

초등학생의 생활만족도 형성요인에 대한 구조적 관계 분석: 사회적 지원과 자기효능감을 중심으로

박영신¹ · 김의철² · 김영희¹ · 민병기¹

¹인하대학교 교육학과 · ²중앙대학교 심리학과

이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원과 자기효능감 및 생활만족도의 인과관계와, 이 변인들간의 직접적이고 간접적 인 효과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분석대상은 초등학교 6학년 1,474명이었으며, 도시 999명(4학교), 농촌 475명(8학교)이었다. 사회적 지원, 자기효능감과 생활만족도의 관계에 대한 인과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LISREL 8을 이용하여 공변량구조분석을 하였다. 사회적 지원은 생활만족도에 대해 높은 직접효과가 있었고, 자기효능감을 통한 간접효과도 있었다. 또한 사회적 지원은 자기효능감에 대한 직접효과가 높았으며, 자기효능감도 생활만족도에 대한 직접효과가 있었다. 즉 부모나 친구 및 교사로부터 사회적 지원을 많이 받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았다. 또한 사회적 지원을 많이 받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아지고,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았다. 그러므로 사회적 지원과 자기효능감은 생활만족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변인이며, 자기효능감은 사회적 지원과 생활만족도를 매개하는 변인으로 작용하였다. 도시 초등학생이 농촌 초등학생보다 사회적 지원을 많이 받고 자기효능감과 생활만족도가 높았으나, 생활만족도 형성에 대한 사회적 지원과 자기효능감의 인과관계는 지역간에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도시나 농촌지역에 관계없이, 사회적 지원과 자기효능감은 초등학생의 생활만족도 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인으로 확인되었다.

한국사회가 'IMF시대' 상황에 처하게 되면서 한국사람들이 겪는 스트레스와 어려움은 그 어느 때 보다 심각하여,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심리학적 접근과 설명이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 급격한 사회 변동으로 인한 불안감은, 안정되고 만족한 삶에 대한 욕구를 더욱 강하게 자극한다. 때로는 문제와 갈등에 대한 분석이 해결에 대한 시사를 제공하나, 해결방안 자체는 아니다. 또한 Diener(1984)가 지적하듯이, 단지 정신병리증상이 없다는 사실이 심리적으로 건강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러한 시

각에서 볼 때, 최근의 사회상황 속에서 한국사람들의 스트레스와 대처에 대한 연구와 동시에, 생활만족도의 형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부각된다. 그 동안 심리학 분야에서 인간 심리의 긍정적인 면에 대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소홀(Diener, 1984)하였으며, 한국에서 이루어진 청소년에 대한 연구들을 보더라도 스트레스에 관련된 연구에 비해 생활만족도에 대한 연구는 비교적 적다(곽금주, 1995). 그러나 점차 삶의 질이나 심리적인 건강 또는 주관적 안녕감에 대한 관심이 증가

(Cowen, 1991)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생활만족도의 형성요인으로 사회적 지원과 자기효능감의 구조적 관계를 분석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 사회적 지원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직접적인 효과와, 이 두 변인의 관계에 대해 개변인으로서 자기효능감의 효과 여부를 분석하고자 한다. 즉 생활만족도의 형성에 있어, 사회적 지원과 자기효능감이 미치는 직접적이고 간접적인 인과적 영향의 정도를 파악하는 데 관심이 있다. 그 동안 선행연구(김의철·박영신, 1999; 김의철·박영신·곽금주, 1998)에서 청소년의 사회적 지원과 자기효능감 및 생활만족도의 관계에 대한 분석이 있었으나, 상관관계와 설명변량이 주된 정보였다. 이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결과들에 기초하여, 청소년 초기에 해당하는 초등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 변인들간의 인과관계 및 직접 간접효과에 대한 파악을 시도하고자 한다. 따라서 연구문제는 사회적 지원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효과분석과, 자기효능감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효과분석의 두 가지로 정리된다. 그 중에서 전자는, 사회적 지원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에 대한 검토와, 사회적 지원의 생활만족도에 대한 영향 중에 자기효능감이 매개변인으로 작용하는 정도에 대한 검토를 포함한다.

사회적 지원의 제공자와 지원내용

사회적 지원은 사회적 지원의 제공자와 그들이 제공하는 사회적 지원의 내용의 면에서 접근될 수 있다. 예컨대 스트레스 상황에서 청소년들은 친구의 도움을 가장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원호택·이민규, 1987; 이경희, 1995). Hirsch와 Reischl(1985)은 청소년이 가족이나 친구집단과의 인간관계 망을 통해 일반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받으나, 심리적인 장애가 있는 가족구성원이 있을 경우에는 오히려 나쁜 영향을 받게 됨을 지적하였다. Wills(1990)도 청소년의 약물남용이 친구집단

과의 사회화과정에서 형성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Cohen과 Wils(1985), Jacobson(1986)은 사회적 지원의 내용을 도구적 지원, 정보적 지원, 정서적 지원으로 구분한 바 있다.

김의철과 박영신(1997)은 성인과 학생의 경우에 스트레스를 받아 내적으로 평가하고 대처하는 과정에서, 인간관계를 통한 사회적 지원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스트레스 상황에서 도움을 받은 사람으로서 친구(54.3%)가 가장 많이 지적되었으며, 그 다음으로 가족(21.5%), 선후배(10.3%)의 순서로 나타났고, 이외에 교사도 포함되었다. 스트레스 상황에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은 내용은, 위로 기분전환 격려와 같은 정서적 도움(33.8%)이 가장 많고, 조언 대화 정보제공과 같은 정보적 도움(31.5%)이 비슷한 반응율을 보이며, 그 다음으로 중재 경청을 포함하는 협조(20.5%), 경제적 도움(5.0%)의 순서로 나타났다. 사회적 지원은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삶에서의 성취를 위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김의철과 박영신(1998a)이 한국 성인과 학생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자신의 삶에서 자랑스러웠던 성공경험에 가장 큰 도움을 준 사람으로 부모의 반응율(32.2%)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친구(19.5%) 교사(11.8%) 부모 외의 가족(11.6%)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이들로부터 받은 사회적 지원의 내용으로는 정서적 지원(34.7%)이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조언(29.5%) 적절한 환경 조성(11.0%) 경제적 지원(9.9%)의 순서였다. 또한 앞으로 인생에서 성공하기 위해 가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도(박영신·김의철, 1999 예정), 부모의 도움이 가장 필요하고(27.8%), 그 다음으로 기타 가족(22.5%) 친구(18.9%) 및 교사(8.1%)의 순서로 나타났다. 미래성취를 위한 사회적 지원의 내용으로, 격려나 이해와 인정과 같은 정서적 지원(36.1%)이 가장 많이 지적되었고, 그 다음으로 정보적 지원(29.8%) 경제적 지원(11.1%) 협조(9.6%)

의 순서로 나타났다.

토착심리학적 접근방법에 의한 연구결과(김의철 · 박영신, 1997; 김의철 · 박영신, 1998a)에 기초하여, 본 연구자들은(김의철 · 박영신, 1999; 김의철 · 박영신 · 곽금주, 1998) 청소년이 받는 사회적 지원을 부모 친구 교사로부터의 지원으로 조작적으로 정의하고, 지원의 내용으로는 부모의 지원을 정서적 정보적 경제적 측면에서, 교사 및 친구지원은 정서적 정보적 측면에서 접근한 바 있다.

사회적 지원과 생활만족도

사회적 지원은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House, Landis와 Umberson(1988)이 관련문헌을 정리한 바에 의하면, 결혼이나 친구관계 등 사회적인 관계는 신체적 심리적인 건강과 관계가 있으며, 사회적으로 고립된 사람들은 건강하지 않고 사망률이 높았다. 따라서 스트레스 상황에서 가족, 친구, 동료와 같은 다양한 관계로부터 정서적인 지원과 중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때, 사람들은 외롭게 생각하지 않았다. Kim(1996)은 사회적 지원이 스트레스의 해결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지적하였으며,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송종용과 원호택(1988)의 연구에서는 스트레스 경험여부에 관계없이 상황에 적합한 사회적 지원을 제공하면, 성취관련 과제의 수행이 증가하고 적응에 도움이 되는 사실을 밝혔다. 문화적인 측면에서 볼 때에도, 사회적 지원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Triandis, Bontempo, Villa-real, Asai와 Lucca(1988)의 연구에 의하면, 집단주의 문화에서 내집단의 강한 결속력은 질병을 완화시키는 사회적 지원으로 작용하였다. Bond(1991)도 강한 집단주의의 문화를 나타내는 국가들에서 암이나 심장병과 같은 질병의 발생빈도가 낮음을 지적하였다. Lumsden(1984)도 카나다의 Hutterites 부족은 종교적으로 강하게 결속되어 있어 집단 구성원들에게 사회적 지원과 보상 및 안정감을 줌으로

써, 정신병 발생률이 낮음을 발견하였다.

특히 생활만족도와 사회적 지원의 정적 관계를 보고하는 연구들이 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손정기(1999)의 연구에서 부모의 사회적 지원은 생활만족도와 $r = .26 \sim .46$ 의 상관을,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박강수(1999)의 연구에서 $r = .35 \sim .51$ 의 상관을 나타내었다. 또한 박강수(1999)와 손정기(1999)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부모의 이해도가 높고 자녀와 대화시간이 많을수록 청소년의 생활만족도가 높은 반면에, 부모와 갈등이 많을수록, 부모-자녀관계가 적대적이고 무관심하며 거부적일수록 청소년의 생활만족도는 낮았다. 김의철과 박영신(1999)의 연구결과, 청소년의 생활만족도와 부지원($r = .41$), 모지원($r = .40$), 교사지원($r = .36$), 친구지원($r = .25$)은 정적인 상관을 보였다. 다양한 가정환경 학교환경 사회환경변인들을 투입하고 중다회귀분석을 하였을 때, 생활만족도를 예언하는 가장 중요한 변인은 부모지원($MR = .45$, $\beta = .31$)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교사지원($\beta = .15$)이 의미있는 예언변인으로 투입되었다. 이외에도 친애/관계적인 학교풍토, 정의/평등지향적 사회풍토, 부모의 사회경제적지위, 친구지원이 의미있는 예언변인으로 포함되었다. 생활만족도에 대한 부모지원의 설명변량이 21%나 되며, β 값은 정적인 방향을 나타내므로, 부모의 정서적 정보적 경제적 지원은 청소년의 생활만족도를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변인이며, 부모의 지원이 많을수록 청소년의 생활만족도가 높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또한 교사나 친구로부터 정서적이거나 정보적인 지원을 받는다고 자각할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았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김의철 · 박영신과 곽금주(1998)는 부모의 지원을 부지원과 모지원으로, 생활만족도를 가정생활만족과 학교생활만족으로 분류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결과, 가정생활만족도는 모지원(도시: $R^2 = .28$, $\beta = .26$)과 부지원(농촌: $R^2 = .24$, $\beta = .27$)의 설명변량이, 학교생활만족도는 교사지원(도시:

$R^2 = .21$, $\beta = .27$; 농촌: $R^2 = .17$, $\beta = .24$)의 설명변량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그러므로 부모나 교사와 같은 주위사람들로부터의 사회적 지원은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이며, 사회적 지원과 생활만족도가 정적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청소년 중기에 해당하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인데, 다른 연령집단 예컨대 청소년 초기와 청소년 후기 집단에서도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는지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사회적 지원, 자기효능감과 생활만족도

생활만족도에 대한 사회적 지원의 설명변량이 직접적인 효과만이 아니라, 다른 변인들의 매개로 인한 간접효과도 포함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특별히 자기효능감의 매개변인으로서 역할에 대해 관심을 갖는다. 자기효능감이란 구체적인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자기의 능력에 대한 신념이다(Bandura, 1997). 자기효능감은 행동의 선택과 지속에 영향을 미치므로, 인간행동의 이해를 위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자기의 능력에 대해 자신감이 없을 수록 어려운 환경에서 포기를 쉽게 하며, 이와 반대로 특정 과제에서 자기효능감이 강할수록 그 과제에 많은 노력을 투입하고 그러한 행동을 지속하는 시간도 길다(Bandura, 1986).

최근 본 연구자들의 연구결과(박영신, 1997; 김의철 · 박영신, 1999; 김의철 · 박영신 · 곽금주, 1998)에 의하면, 자기효능감은 생활만족도, 학업성취, 일탈행동 등 다양한 행동특성들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김의철 · 박영신과 곽금주(1998)의 연구 결과, 청소년의 관계효능감은 전반적인 생활만족도를 약 25% 설명하는 가장 예언력있는 변인으로 확인되었으며(도시: $MR = .49$, $\beta = .18$; 농촌: $MR = .50$, $\beta = .25$), 가정생활만족도 및 학교생활만족도에 대해서도 의미한 예언변인으로 포함되었다. 관계효능감이 높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다는 사실은, 만족스러운

생활이 성공적인 인간관계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관계효능감 외에도, 도시 청소년의 경우는 주위사람기대일치효능감과 자기주장효능감이, 농촌 청소년 경우는 학업성취효능감이 생활만족도를 예언하는 의미있는 변인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자기효능감이 생활만족도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동일한 자기효능감 측정도구를 사용한 권혁호(1998)의 연구에서, 자기효능감의 8개 하위변인은 생활만족도와 $r = .27 \sim .50$ 의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자기효능감의 형성에 있어 사회적 지원의 중요성을 시사하는 연구들이 있다. Bandura(1997)는 자기효능감이 격려나 칭찬과 같은 언어적 설득에 의해 형성된다고 보았는데, 이는 주위 사람들로부터의 사회적 지원이 중요함을 함축한다.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김의철과 박영신(1999)의 연구에서도 사회적 지원이 자기효능감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 즉 부지원($r = .22 \sim .39$) 모지원($r = .24 \sim .41$) 친구지원($r = .16 \sim .29$) 교사지원($r = .11 \sim .28$)은, 자기효능감의 8개 하위변인들과 모두 정적인 상관을 보였다. 중다회귀분석을 하였을 때, 부모지원은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생활만족도 뿐만 아니라 자기효능감을 가장 잘 예언하는 환경변인이며($MR = .24 \sim .45$, $\beta = .13 \sim .33$), 친구지원은 사회성효능감을 설명하는 변량이 매우 높다.

연구모형

이상에서의 선행연구 결과들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을 공변량구조분석이 가능한 모형으로 정리한 결과가 그림 1이다. 그림 1은 사회적 지원, 자기효능감과 생활만족도의 관계에 대한 인과모형으로서, 사회적 지원은 외생변인이고 자기효능감은 매개변인 역할의 내생변인이며 생활만족도는 내생변인으로, 세 변인 모두 잠재변인이다. 사회적 지원의 측정변인은 부지원 모지원 친구지원 교사지원이다. 자기효능감의 측정변인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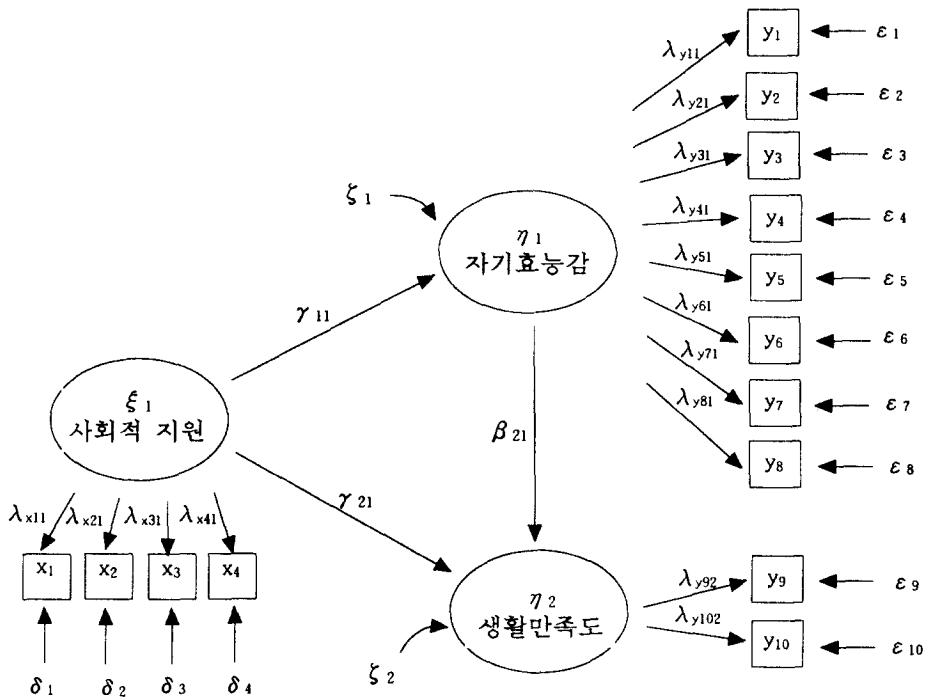


그림 1. 사회적 지원, 자기효능감과 생활만족도의 관계에 대한 인과모형

학업성취효능감, 자기조절학습효능감, 여가시간 활용효능감, 주위사람기대일치효능감, 자기주장효능감, 자기조절동기효능감, 사회성효능감, 관계효능감의 8개로 구성되어 있다. 생활만족도는 가정생활 만족과 학교생활만족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회적 지원과 자기효능감 및 생활만족도간의 인과관계 모형을 검증함에 있어 도시와 농촌지역 차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김의철·박영신과 곽금주(1998)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도시와 농촌 지역에 따라 사회적 지원과 자기효능감 및 생활만족도에 차이가 있었다. 즉 도시 청소년일 수록 부모의 지원을, 농촌 청소년일수록 교사 지원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지각하였으며, 자기효능감은 도시 청소년이 더 높았다. 가정생활만족도는 도시 청소년이, 학교생활만족도는 농촌 청소년이 더 높았다. 이외에도 지역별로 심리, 행동특성 및 환경에 대한 지각에서 차이가 있었는데, 이러한 환경

지각에서의 차이는 심리, 행동특성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성이 있다. Graig(1993)도 도시와 농촌지역 환경의 차이가 사람들의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지적한 바 있다. 그 동안 청소년에 대한 연구는 주로 도시청소년을 대상으로 분석한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도시와 농촌 청소년은 환경지각과 심리, 행동특성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으므로, 지역차를 고려한 인과모형 검증이 필요하다.

방 법

대상

이 연구를 위한 표집대상은 초등학교 6학년 1,519명이었다. 경기도내 대도시에서 4개 초등학교를 표집하여 1,013명이, 경기도내 농촌에서 8개 초등학교를 표집하여 506명이 표집되었다. 이 연구

를 위해 표집된 농촌지역은 주민들 대부분이 농사에 의존하는 전형적인 농촌이었다. 표집대상 중에서 응답이 불성실한 자료를 제외한 최종분석대상은 1,474명으로서, 표 1에 제시한 바와 같다. 도시 999명, 농촌 475명이었고, 남학생이 761명 여학생이 713명이었다.

도구

사회적 지원 질문지는 김의철과 박영신(1999)이 제작한 것으로, 하위변인은 부지원 모지원 친구지원 교사지원으로 구성되었다. 부지원 모지원 친구지원 교사지원 모두, '전혀 아니다'에서 '매우 그렇다'에 이르기까지 7점 척도에 응답하도록 되어 있으며, 값이 클수록 부모로부터의 지원을 많이 받는 것으로 해석된다.

부지원과 모지원을 측정하는 문항을 제작하기 위해 중2 남녀학생 1학급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하였다. 평소에 부모로부터 받는 지원을 자유응답식으로 5개씩 기록하도록 하고, 이를 개념적으로 분석한 결과 '이해 격려 및 정서적 지원' '충고 조언 및 정보적 지원' '생활의 안정 및 경제적 지원'의 세 유목으로 분류되었다. 대표적인 반응을 선택하여 내용 및 표현을 문항으로 적합하도록 수정하여, 각 6개씩 총 18개 문항을 결정하였다. 중학생 5,504명을 대상으로, 부지원과 모지원 각각에 대한

Cronbach α 계수를 구한 결과, .82~.93으로 양호하였다. 이 연구에서 초등학교 6학년 1,474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을 때에도, 표 2에 제시한 바와 같이 부지원과 모지원 모두 $\alpha = .90$ 이상의 매우 높은 신뢰도를 보이고 있다.

친구지원은 청소년이 또래집단의 친구들로부터 받는 도움에 대한 지각의 정도를 측정한다. 부지원 모지원에서와 동일한 정서적 정보적 지원 문항을 각 6개씩 12개로 측정하였다. 김의철과 박영신(1999)의 연구에서 $\alpha = .89$ 이상의 신뢰도를 나타내었으며, 이 연구에서도 $\alpha = .91$ 로 신뢰도가 높다(표 2 참고).

교사지원은 청소년이 교사로부터 받는 도움에 대한 지각을 의미하며, 부모지원과 동일한 정서적 정보적 지원을 측정하는 12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김의철과 박영신(1999)의 연구에서 $\alpha = .89$ 이상의 신뢰도를, 이 연구에서는 $\alpha = .91$ 의 높은 신뢰도를 보인다(표 2 참고). 따라서 사회적 지원 질문지의 하위변인들은 모두 매우 양호하다고 할 수 있다.

자기효능감 질문지는 총 8개 변인으로 구성되었다. Bandura(1995)가 제작한 자기효능감 질문지의 하위변인 9개 중에서, 박영신(1997)의 연구에서 신뢰도가 .81 이상이면서 우리 문화에 비교적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는 5개 변인, 즉 학업성취효능감, 자기조절학습효능감, 여가시간활용효능감, 주위사람 기대일치효능감, 자기주장효능감을 선택하였다. 여기에 Zimmerman과 Bandura(1994)가 제작한 자기조절동기효능감 및, 연구자가 제작한 사회성효능감과 관계효능감을 추가하였다. 이들 8개 변인에 대해 신뢰도를 구한 결과 $\alpha = .66 \sim .85$ 이었다. 이

표 1. 연구대상

성별 \ 지역	도시	농촌	계
남	530	231	761
여	469	244	713
계	999	475	1,474

표 2. 측정변인의 신뢰도

변인	사회적 지원				자기효능감								생활만족도	
	부지원	모지원	친구지원	교사지원	학업성취	자기조절학습	여가시간활용	주위사람기대일치	자기주장	자기조절동기	사회성	관계	학교생활만족	가정생활만족
신뢰도	.90	.91	.91	.91	.79	.84	.73	.72	.64	.72	.81	.65	.60	.71

연구에서 각 하위변인의 신뢰도를 구한 결과는 $\alpha = .64 \sim .84$ 사이의 값을 보이므로써, 자기주장효능감과 관계효능감이 약간 낮지만 전반적으로 양호하다(표 2 참고).

생활만족도 질문지는 Kim(1988)이 Taft(1986)의 도구를 기초로 제작한 것을 수정한 것으로, 개인의 생활 및 관계에 대한 만족도를 의미한다. 김의철과 박영신(1999)이 총 11개 문항에 대한 신뢰도를 구한 결과, $\alpha = .85$ 로 나왔다. 11개 문항 중에서 가정생활과 관련된 만족도와 학교생활과 관련된 만족도를 측정하는 문항을 각각 3개씩 선정하여, 김의철·박영신과 곽금주(1998)의 연구에서 가정생활만족도와 학교생활만족도로 구성하였을 때 각각의 신뢰도는 $\alpha = .81, .66$ 이었다. 이 연구에서는 $\alpha = .60 \sim .71$ 로, 다른 변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신뢰도계수가 낮게 나타났는데, 그 이유는 문항 수가 적은 것에(각각 3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실시절차 및 분석방법

질문지의 실시는 연구자들이 각 학교를 방문하여 직접 하였다. 담임교사와 학생들에게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하고, 수업시간을 활용하여 동시에 질문지를 실시하였다. 일부 학교의 경우는 담임교사가 각 학급에 들어간 뒤에, 학교방송을 활용하여 연구자가 직접 지시사항을 설명하였다.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두 개의 통계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SPSS PC+는 측정도구의 신뢰도, 도시와 농촌지역 초등학생간의 차이에 대한 t-검증, 변인간 상관관계, 기술통계치 분석에 사용하였다. 또한 LISREL VIII은 변인간의 인과관계를 밝히기 위한 공변량구조분석을 위해 활용하였다. 인과모형의 모수 추정은 ML(최대우도법,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으로 하였으며, 모형에 대한 전반적 적합도 지수(overall goodness of fit measures)는 χ^2 유의도, χ^2/df (표준카이자승), GFI(기초적합치, goodness of fit index), AGFI(조정부합

치, adjusted goodness of fit index) NFI(표준부합치, normed fit index) RMR(원소간 평균차이, root mean square residual)을 구하여 비교하고 종합적으로 모형을 선정하였다. 세부적 적합도지수(focused measures of goodness of fit)로는 SMC(중다상관자승, squared multiple correlation)과 MI(추가지수, modification index)과 t(고정지수)를 검토하였다. 모형수정과정을 거쳐, χ^2 차이검증에 의해 수정모형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수정모형에 대해 잠재변인들 간의 경로계수와 측정변인들의 요인부하량 및, 변인들의 직접효과 간접효과 전체효과 결과를 분석하였다.

결과

지역별 초등학생의 사회적 지원, 자기효능감, 생활만족도의 차이

도시와 농촌 초등학생의 사회적 지원, 자기효능감, 생활만족도의 차이를 t-검증한 결과가 표 3이다. 사회적 지원의 네 하위변인 모두에서 의미있는 차이가 있으며, 모두 도시가 농촌보다 평균이 높다. 따라서 도시의 초등학생이 부모나 친구 및 교사로부터 사회적인 지원을 많이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기효능감의 경우에도, 8개 하위변인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고, 모두 도시의 평균이 높다. 그러므로 사회적 지원에서와 마찬가지로 도시 초등학생이 농촌 초등학생보다 자기효능감이 높으며, 특히 학업성취나 자기조절 및 사회성 관계와 관련된 효능감이 높다. 생활만족도도 지역별로 의미있는 차이가 있는데, 도시가 2개 하위변인 모두에서 평균이 높으므로, 도시 초등학생이 농촌 초등학생보다 상대적으로 가정생활 및 학교생활에 만족하는 정도가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초등학생의 생활만족도와 이와 관련된 사회적 지원 및 자기효능감은 지역별로 의미있는 차이가 있으며, 도시 초등학생이 농촌 초

표 3. 도시와 농촌지역 초등학생의 사회적 지원, 자기효능감, 생활만족도의 차이

변인	신뢰도	도시	농촌	<i>t</i>
		M (SD)	M (SD)	
사회적 지원	부지원	5.54 (1.01)	5.28 (1.20)	3.94***
	모지원	5.93 (.94)	5.74 (1.12)	3.19**
	교사지원	5.04 (1.24)	4.62 (1.61)	5.06***
	친구지원	5.02 (1.38)	4.80 (1.44)	2.88**
자기효능감	학업성취	4.66 (.99)	4.24 (1.08)	7.17***
	자기조절학습	4.34 (.98)	4.11 (1.02)	4.05***
	여가시간활용	4.62 (1.07)	4.46 (1.08)	2.67**
	주위사람기대일치	4.29 (1.12)	4.14 (1.09)	2.55*
	자기주장	4.45 (1.23)	4.25 (1.21)	2.97**
	자기조절동기	4.69 (1.02)	4.43 (1.10)	4.26***
	사회성	4.61 (1.17)	4.38 (1.20)	3.56***
	관계	5.23 (.97)	4.80 (1.07)	7.41***
생활만족도	가정생활만족도	5.79 (1.19)	5.58 (1.22)	3.19**
	학교생활만족도	4.54 (1.26)	4.35 (1.36)	2.62**

* $p < .05$ ** $p < .01$ *** $p < .001$

등학생보다 주위 사람들로부터 사회적 지원도 많이 받고 자기효능감이나 생활만족도도 높다는 설명이 가능하다. 따라서 아래의 공변량구조분석에서는 각 지역별 초등학생의 자료를 따로 분석하고자 한다.

인과모형 적합도 검증

측정변인에 대한 기술통계

본 연구에 투입된 측정변인들에 대한 기술통계치들을 정리한 결과가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먼저 도시자료의 경우에 변인간의 단순상관계수가 모두 $r = .90$ 이하이므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조선배, 1996). 사회적 지원과 자기효능감의 관계는 모두 정적관계를 보이고 있으므로, 사회적 지원을 많이 받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사회적 지원과 관계효능감의 상관관계가 높음으로써($r = .31 \sim .40$), 부모나 친구 및 교사로부터 사회적 지원을 많이 받는 집단에서 관계효능감이 높은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사회적 지원과 생활만족도도 정적 관계를 보이는데,

부모의 지원은 가정생활만족과($r = .46 \sim .48$), 교사지원은 학교생활만족과 상관계수가($r = .43$) 상대적으로 높다. 자기효능감과 생활만족도의 관계도 모두 정적 상관계수를 보인다. 학업성취효능감($r = .30$) 자기조절학습효능감($r = .31$) 주위사람기대일치효능감($r = .27$) 자기조절동기효능감($r = .29$)은 학교생활만족도와, 관계효능감($r = .43$)은 가정생활만족도와 상관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다.

각 측정변인의 평균을 보면, 사회적 지원의 하위변인은 모두 5.02 이상으로서, 초등학생들이 전반적으로 사회적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지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네 하위변인 중에서 모지원의 평균이 가장 높으므로, 다른 사람들에 비해 어머니로부터 사회적 지원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는 것으로 지각한다. 자기효능감의 경우는 하위변인들이 모두 4.29 이상의 평균값을 보이므로써, 전반적으로 효능감이 높은 편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생활만족도의 두 하위변인의 평균이 모두 4.54 이상이나, 가정생활만족도가 학교생활만족도보다 높으므로, 초등학생들이 대체로 학교보다는 가정에서의 만족도가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표 4. 측정변인의 기술통계치 ($n=1,474$)

도 시	부지원	모지원	친구 지원	교사 지원	학업 성취	자기조절 여가시간 주위사람 활용	기대일치	자기 주장	자기조절 동기	사회성	관계	학교생활 만족	가정생활 만족	
부지원	1.00													
모지원	.66	1.00												
친구지원	.42	.42	1.00											
교사지원	.41	.35	.33	1.00										
학업성취	.23	.24	.14	.17	1.00									
자기조절학습	.34	.35	.25	.27	.67	1.00								
여가시간 활용	.29	.25	.29	.21	.48	.49	1.00							
주위사람기대일치	.31	.31	.26	.26	.53	.61	.50	1.00						
자기주장	.19	.17	.18	.14	.48	.49	.42	.41	1.00					
자기조절동기	.33	.31	.22	.28	.64	.73	.47	.55	.41	1.00				
사회성	.31	.26	.31	.23	.43	.50	.66	.47	.49	.46	1.00			
관계	.40	.39	.31	.31	.47	.50	.47	.54	.45	.49	.51	1.00		
학교생활만족	.20	.20	.19	.43	.30	.31	.16	.27	.18	.29	.16	.28	1.00	
가정생활만족	.46	.48	.25	.22	.21	.28	.16	.29	.16	.29	.20	.43	.35	1.00
평균	5.54	5.93	5.02	5.04	4.66	4.34	4.62	4.29	4.45	4.69	4.61	5.23	4.54	5.79
표준편차	1.01	.94	1.38	1.24	.99	.98	1.07	1.12	1.23	1.02	1.17	.96	1.26	1.19
첨도	.56	1.33	-.14	.20	-.21	-.06	-.44	-.11	-.29	-.23	-.48	-.20	.08	.93
편포도	-.77	-1.12	-.55	-.55	.03	.18	-.04	.12	-.08	-.07	-.10	-.37	-.36	-.10
농 촌	부지원	모지원	친구 지원	교사 지원	학업 성취	자기조절 여가시간 주위사람 활용	기대일치	자기 주장	자기조절 동기	사회성	관계	학교생활 만족	가정생활 만족	
부지원	1.00													
모지원	.70	1.00												
친구지원	.38	.44	1.00											
교사지원	.25	.22	.27	1.00										
학업성취	.30	.34	.24	.12	1.00									
자기조절학습	.38	.38	.35	.20	.80	1.00								
여가시간 활용	.28	.35	.32	.16	.61	.60	1.00							
주위사람기대일치	.30	.34	.34	.20	.65	.71	.62	1.00						
자기주장	.28	.30	.29	.17	.59	.63	.56	.50	1.00					
자기조절동기	.38	.37	.34	.22	.75	.82	.60	.68	.63	1.00				
사회성	.37	.39	.38	.14	.56	.59	.72	.55	.58	.60	1.00			
관계	.41	.45	.38	.24	.60	.66	.61	.58	.59	.65	.59	1.00		
학교생활만족	.30	.19	.30	.56	.38	.42	.24	.41	.34	.44	.23	.37	1.00	
가정생활만족	.50	.47	.22	.12	.29	.29	.22	.28	.26	.31	.27	.37	.36	1.00
평균	5.28	5.74	4.80	4.62	4.24	4.11	4.46	4.14	4.25	4.43	4.38	4.80	4.35	5.58
표준편차	1.20	1.12	1.44	1.61	1.08	1.02	1.08	1.09	1.21	1.10	1.20	1.07	1.36	1.22
첨도	.63	1.77	-.24	-.41	-.19	.14	-.26	.33	-.33	.12	-.23	.11	-.28	.71
편포도	-.86	-1.23	-.54	-.53	.07	.17	-.24	-.02	.03	-.10	-.09	-.36	-.42	-.95

가설적 모형의 계수 산출방법으로 최대우도법 (ML)을 사용하기 위해, 측정변인의 정상분포 가정 (Muthen & Kaplan, 1984; 이종목, 1990 재인용)을 만족하는지 검토하였다. 모지원의 첨도와 편포도 및 가정생활만족의 편포도가 1보다 크나 2보다 작

고, 다른 측정변인들은 모두 절대값 1 이하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측정변인들이 정상분포 가정에 위배되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 가능하다.

농촌 자료의 경우도 도시 자료에서와 마찬가지로, 측정변인간의 상관계수가 $r = .90$ 이상인 경우

가 하나도 없어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유발할 가능성이 낮다. 측정변인간의 상관패턴을 보면 전체적으로 도시 자료와 거의 유사하다. 도시 자료에서와 마찬가지로 사회적 지원과 자기효능감은 모두 정적관계이며, 자기효능감의 하위변인 중에서 특히 관계효능감과 상관이 높다($r = .24 \sim .45$). 사회적 지원과 생활만족도도 정적 관계이며, 부모의 지원은 가정생활만족과($r = .50 \sim .47$), 교사의 지원은 학교생활만족과 상관계수가($r = .56$) 높다. 자기효능감과 생활만족도의 관계에서 학교생활만족도는 학업성취효능감($r = .38$) 자기조절학습효능감($r = .42$) 주위 사람기대일치효능감($r = .41$) 자기조절동기효능감($r = .44$)과, 가정생활만족도는 관계효능감($r = .37$)과 상대적으로 높은 정적관계를 보인다.

각 측정변인의 평균을 보면, 도시 초등학생과 마찬가지로 전반적으로 사회적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지각하며, 다른 사람들에 비해 어머니로부터 지원을 많이 받는다. 자기효능감은 모두 4.11 이상으로서 효능감이 높은 편이며, 생활만족도도 높은 편이나 가정생활만족도가 학교생활만족도보다 높다. 측정변인의 정상분포 여부를 검토한 결과는, 모지원의 첨도와 편포도가 1보다 크나 2보다 작고, 다른 측정변인들은 모두 절대값 1 이하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정상분포 가정을 충족한다.

전반적 적합도검증과 모형수정

이 연구의 가설적 모형이 경험적 자료와 잘 부합하는지를 검토하기 위해 전반적 적합도 검증을 시도하고, 단계적으로 수정모형을 구성하였다. 표 5는 기초모형과 수정모형의 전반적 적합도 평가결과를 요약한 것이다. 먼저 도시자료의 기초모형을 보면, χ^2 값이 $p < .001$ 수준에서 유의하며, χ^2/df 가 5를 훨씬 넘는다. GFI, AGFI, NFI 모두 .90 이하이며, RMR은 0.5를 약간 넘는다. 전반적 적합도 지수들을 종합적으로 볼 때, 기초모형이 자료에 잘 부합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기초모형에 대한 모형수정을 하였다. 모형수정 방법으로 미지수를 추가하므로써 간명도를 회생하는 대신 모형의 자료에 대한 적합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모형수정을 위해 세부적 적합도지수 중에 MI(추가지수)를 검토하여, 모형의 적합도가 가장 큰 증가를 보이는 미지수를 단계적으로 추가하였다. 수정모형1은 적합도의 증가가 가장 큰 (χ^2 감소 = 181.3) 사회성효능감과 여가시간활용효능감의 관계를 자유특징수로 한 모형이다. 수정모형2는 교사지원과 학교생활만족도(χ^2 감소 = 126.8)를, 수정모형3은 자기조절학습효능감과 자기조절동기효능감 (χ^2 감소 = 59.0)을, 수정모형4는 관계효능감과 가정생활만족도(χ^2 감소 = 45.9)를 단계적으로 자유특징수로 하였다. 수정된 모형들간에 χ^2 차이검증(Bentler

표 5. 기초모형과 수정모형의 전반적 적합도평가

지 역	모 형	df	χ^2	χ^2/df	GFI	AGFI	NFI	RMR
도 시	기초모형	74	843.21*	11.39	.88	.84	.86	.06
	수정모형1	73	656.11*	8.99	.91	.87	.89	.06
	수정모형2	72	519.39*	7.21	.93	.89	.92	.06
	수정모형3	71	463.77*	6.53	.94	.91	.93	.06
	수정모형4	70	416.31*	5.95	.94	.91	.93	.05
	수정모형5	69	393.27*	5.70	.94	.92	.94	.05
농 촌	기초모형	74	569.61*	9.34	.85	.79	.86	.07
	수정모형1	73	410.75*	5.63	.88	.83	.90	.06
	수정모형2	72	309.91*	4.30	.91	.87	.92	.06
	수정모형3	71	274.01*	3.86	.92	.88	.93	.06

* $p < .001$

& Bonett, 1980)을 한 결과가 표 6이다. 기초모형과 수정모형1의 $\Delta\chi^2$ 값에 비해, 수정모형4와 수정모형5의 값은 현저하게 낮아졌으나, 유의도는 여전히 $p < .01$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수정모형4의 경우에, χ^2/df 가 5에 가깝고, GFI AGFI NFI 모두 .90 이상이며, RMR은 0.5이다. 비록 수정모형4의 χ^2 값이 유의하고, 수정모형4와 수정모형5의 $\Delta\chi^2$ 값도 유의하나, 이는 χ^2 가 표본크기의 합수이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설명된다. 따라서 수정모형4를 최종모형으로 선정하였다.

농촌자료의 기초모형은, χ^2 값이 $p < .001$ 수준에서 유의하며, χ^2/df 도 5를 훨씬 넘는다. GFI, AGFI, NFI 모두 .90 이하이며, RMR은 0.5를 넘는다. 그러므로 기초모형의 자료에 대한 적합도가 낮다. 따라서 MI를 기초로, 모형의 적합도가 가장 큰 증가를 보이는 미지수를 단계적으로 추가하였다. 수정모형1은 적합도의 증가가 가장 큰 (χ^2 감소 = 135.3) 교사지원과 학교생활만족도의 관계를, 수정모형2는 사회성효능감과 여가시간활용효능감 (χ^2 감소 = 95.5)을 단계적으로 자유특징수로 한 모형이다. 수정모형들간에 χ^2 차이검증을 한 결과, 표 6에 제시한 바와 같이 기초모형과 수정모형1의 $\Delta\chi^2$ 값에 비해, 수정모형2와 수정모형3의 값은 현저하게 낮아졌으나, 유의도는 계속 $p < .01$ 수준이다. 수정모형2의 경우, χ^2/df 가 5 이하이며, GFI와 NFI가 .90 이상이며, RMR도 0.5에 가깝다. 비록 수정모

형2의 χ^2 값이 유의하고, 수정모형2와 수정모형3의 $\Delta\chi^2$ 값도 유의하나, 이는 도시 자료에서와 마찬가지로 표본이 크기 때문에 모형이 현실을 잘 설명하고 있어도 모형과 현실간의 근소한 차이에 대해서 민감하게 “심각한 차이”라는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통계적 유의성 때문에 과학적 중요성을 회생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므로(이순묵, 1990), 표본크기에 비교적 영향을 적게 받는 다른 적합도 지수들에 대해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χ^2 차이검증을 한 결과 수정모형1과 수정모형2가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수정모형2와 수정모형3도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모형의 간명도를 더 이상 회생하지 않기 위해 수정모형2로 최종적인 선택을 하였다.

최종수정모형의 세부적 적합도검증

도시 자료의 최종 모형인 수정모형4와 농촌 자료의 최종 모형인 수정모형2에 대해 세부적 적합도검증을 하였다. 이론모형에 대한 결과는 표 7에, 측정모형에 대한 결과는 표 8에 제시되어 있다. 먼저 표 7을 보면 도시의 경우, 자기효능감의 변량이 사회적 지원에 의해 설명되는 정도가 .27, 생활만족도의 변량이 사회적 지원과 자기효능감에 의해 설명되는 정도가 .47이다. 허용되는 SMC의 범위가 .20~.99라는 기준(Fassinger, 1987)에 비추어 볼 때, 도시자료 이론모형에서 내생변인들이 예측변인에 의해 잘 설명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γ_{11} , γ_{21} , β_{21} 의 t 값이 모두 2 이상이므로, 의미 있는 구조경로라고 할 수 있다.

농촌의 경우, 자기효능감과 생활만족도의 SMC가 .28과 .60으로서 이론모형의 예측변인들에 의해 잘 설명되고 있다. 또한 γ_{11} , γ_{21} , β_{21} 의 t 값을 보면 크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모형에 표시된 미지수가 유지할만큼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7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볼 때, 세부적 적합도

표 6. 모형들간의 χ^2 차이검증

지역	비교 모형	Δdf	$\Delta\chi^2$
도시	기초모형과 수정모형1	1	192.10*
	수정모형1과 2	1	136.73*
	수정모형2와 3	1	55.62*
	수정모형3과 4	1	47.46*
	수정모형4와 5	1	23.04*
농촌	기초모형과 수정모형1	1	158.86*
	수정모형1과 2	1	100.84*
	수정모형2와 3	1	35.90*

* $p < .01$

표 7. 이론모형의 세부적 적합도지수와 경로계수: 최종 수정모형

지역	구조경로	SMC	t	경로계수
도시	사회적 지원 → 자기효능감 (γ_{11})	.27	13.22*	.52
	→ 생활만족도 (γ_{21})	[.47]	8.61*	.54
	자기효능감 → 생활만족도 (β_{21})		4.60*	.22
농촌	사회적 지원 → 자기효능감 (γ_{11})	.28	9.71*	.53
	→ 생활만족도 (γ_{21})	[.60]	5.96*	.53
	자기효능감 → 생활만족도 (β_{21})		5.00*	.35

* $p < .001$

표 8. 측정모형의 세부적 적합도지수와 요인부하량: 최종 수정모형

지역	변인구분	측정변인	SMC	t	λ		
					사회적 지원	자기효능감	생활만족도
도시	외생변인	부지원	(λ_{x11})	.69	28.71*	.83	
		모지원	(λ_{x21})	.63	27.20*	.80	
		친구지원	(λ_{x31})	.28	16.44*	.53	
		교사지원	(λ_{x41})	.25	15.65*	.50	
	내생변인	학업성취	(λ_{y11})	.57	25.40*		.75
		자기조절학습	(λ_{y21})	.66	27.74*		.81
		여가시간 활용	(λ_{y31})	.42	21.02*		.65
		주위사람기대일치	(λ_{y41})	.54	24.56*		.73
농촌	외생변인	자기주장	(λ_{y51})	.37	19.51*		.61
		자기조절동기	(λ_{y61})	.57	25.18*		.76
		사회성	(λ_{y71})	.42	20.93*		.65
		관계	(λ_{y81})	.48	22.97*		.69
	내생변인	가정생활만족도	(λ_{y92})	.59	12.17*		.77
		학교생활만족도	(λ_{y102})	.23	12.77*		.48
		부지원	(λ_{x11})	.69	19.81*	.83	
		모지원	(λ_{x21})	.71	20.25*	.84	
농촌	외생변인	친구지원	(λ_{x31})	.27	11.12*	.51	
		교사지원	(λ_{x41})	.12	7.44*	.36	
	내생변인	학업성취	(λ_{y11})	.72	21.43*		.85
		자기조절학습	(λ_{y21})	.83	23.77*		.91
		여가시간 활용	(λ_{y31})	.50	16.75*		.71
		주위사람기대일치	(λ_{y41})	.60	18.84*		.77
		자기주장	(λ_{y51})	.50	16.80*		.71
		자기조절동기	(λ_{y61})	.78	22.80*		.89
		사회성	(λ_{y71})	.46	16.00*		.68
		관계	(λ_{y81})	.56	18.14*		.75
		가정생활만족도	(λ_{y92})	.48	8.81*		.69
		학교생활만족도	(λ_{y102})	.33	8.93*		.57

* $p < .001$

지수의 면에서 도시와 농촌의 이론모형은 최종 수

제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정모형의 구조경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에 큰 문

도시 최종 수정모형4와 농촌 최종 수정모형2의

각 측정모형에 대해 세부적 적합도검증을 한 결과가 표 8이다. 도시의 경우, 외생변인을 보면 사회적 지원의 하위변인들이 사회적 지원에 의해 설명되는 정도가 .25~.69이므로, 부모 친구 교사의 지원이 초등학생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측정하는 좋은 변인들이라고 할 수 있다. 내생변인 중에 자기효능감 측정변인들의 SMC는 .37~.66 사이의 값 을 보이므로, 자기효능감 하위변인들은 자기효능감을 상당히 잘 측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생활만족도 측정변인들도 SMC가 각각 .23~.59이므로, 생활만족도를 양호하게 측정한다. λ 에 대한 t값들은 모두 $p < .001$ 수준에서 매우 유의하므로, 측정변인들이 모두 유지할 가치가 있는 의미있는 변인들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세부적 적합도지수를 모두 고려하여 볼 때, 도시자료의 경우에 측정변인들 모두가 이론변인을 측정하는 데 매우 의미있는 중요한 변인들이라는 결론이 가능하다.

농촌의 경우, 외생변인인 사회적 지원의 SMC를 보면 교사지원을 제외한 측정변인들은 모두 .20 이상의 양호한 값을 보이므로, 사회적 지원을 측정하는 적절한 하위변인이라는 설명이 가능하다. 교사지원은 낮은 값을 보이므로, 농촌 초등학생의 사회적 지원을 설명하는 데 교사지원이 좋은 변인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교사지원의 경우 λ 에 대한 t값이 다른 측정변인들과 마찬가지로 $p < .001$ 수준에서 유의하므로, 교사지원의 λ 를 고정할 필요는 없다. 내생변인을 보면, 자기효능감 측정변인들의 SMC는 .46~.83으로 높고, t값도 $p < .001$ 수

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다. 생활만족도 측정변인들은 자기효능감 측정변인들보다는 낮은 값이나, SMC와 t값 모두 양호하다. 따라서 농촌의 경우에 교사지원이 다른 하위변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잠재변인을 측정하는 데 설명정도가 약간 낮으나, 전반적으로 도시자료에서와 마찬가지로 측정변인들이 잠재변인들을 설명하는 데 적합하다.

표 8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볼 때, 세부적 적합도지수의 면에서 도시와 농촌의 측정모형은 최종 수정모형의 구조경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이론모형의 인과관계 추정

전반적 적합도지수나 세부적 적합도지수에 있어 양호한 것으로 확인된 최종 수정모형의 계수들을 그림으로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그림 2는 도시 초등학생을, 그림 3은 농촌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사회적 지원, 자기효능감과 생활만족도의 관계를 검증한 모형이다.

이 모형을 기초로 구조경로들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각각의 경로들에 대한 직접효과와 간접효과 및 전체효과를 정리한 결과가 표 9에 제시되어 있다. 도시자료에서 사회적 지원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52이었다. 사회적 지원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54이고, 여기에 자기효능감을 통한 간접효과 .12가 추가되어 전체효과는 .66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자기효능감이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효과는 .22였다. 농촌

표 9. 수정모형의 효과분석

지역	구조경로	직접효과 (t)	간접효과 (t)	전체효과 (t)
도시	사회적 지원 → 자기효능감 (γ_{11})	.52 (13.22*)	-	.52 (13.22*)
	→ 생활만족도 (γ_{21})	.54 (8.61*)	12 (4.12*)	.66 (10.29*)
	자기효능감 → 생활만족도 (β_{21})	.22 (4.65*)	-	.22 (4.65*)
농촌	사회적 지원 → 자기효능감 (γ_{11})	.53 (9.71*)	-	.53 (9.71*)
	→ 생활만족도 (γ_{21})	.53 (5.96*)	18 (4.78*)	.71 (7.39*)
	자기효능감 → 생활만족도 (β_{21})	.35 (5.05*)	-	.35 (5.05*)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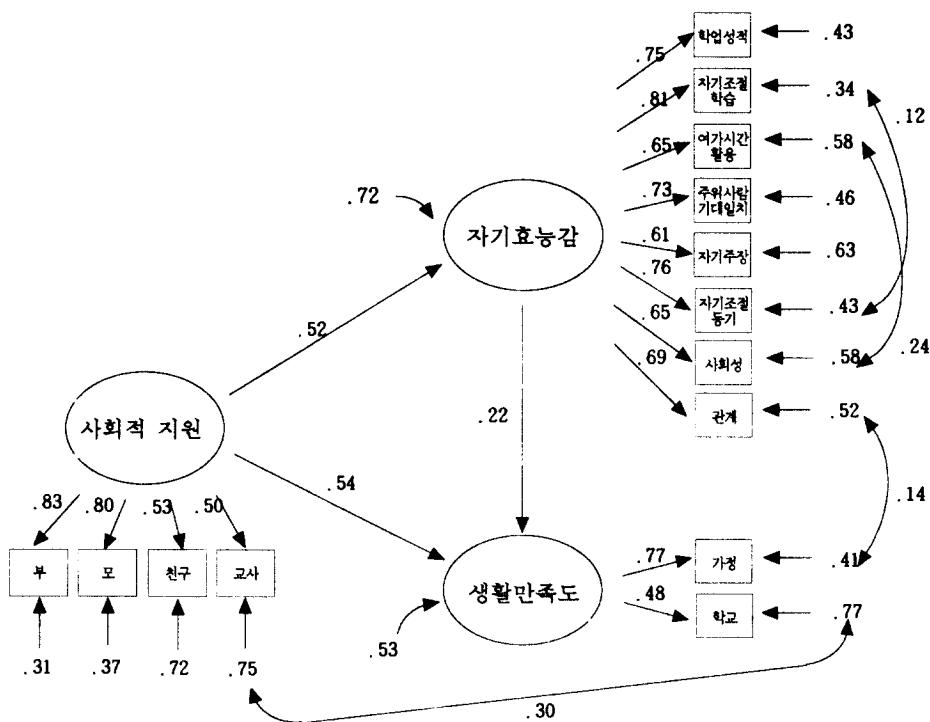


그림 2. 도시 초등학생의 사회적 지원, 자기효능감과 생활만족도의 관계에 대한 검증모형

자료의 경우, 사회적 지원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53이었다. 사회적 지원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53이고 간접효과는 .18이므로 전체효과는 .71이었다. 자기효능감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35이었다. 도시와 농촌자료 모두에서 제시된 구조경로들의 t값은 모두 $p < .001$ 수준에서 매우 유의하였다.

표 9, 그림 2, 그림 3의 결과를 요약하면, 부모나 친구 및 교사로부터 받는 사회적 지원은 초등학생의 자기효능감과 생활만족도를 결정하는 데에 직접적으로 중요한 영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초등학생의 자기효능감은 생활만족도를 결정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지원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매개변인으로서 간접적인 영향이 있다. 이러한 결과는 도시와 농촌 초등학생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자기효능감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직접효과와, 사회적 지원이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매개변인으로서 자기효능감의 간접효과에서, 농촌 초등학생은 도시학생보다 자기효능감의 영향력이 약간 더 큰 경향이 있다.

논의 및 결론

이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원과 자기효능감이 생활만족도의 형성에 미치는 직접적이고 간접적인 효과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사회적 지원, 자기효능감과 생활만족도의 관계에 대한 인과모형을 설정하고, 공변량구조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결과로부터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점에 주목하게 된다.

첫째, 사회적 지원은 생활만족도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변인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결론은 사회적 지원이 생활만족도를 설명하는 직접효과가 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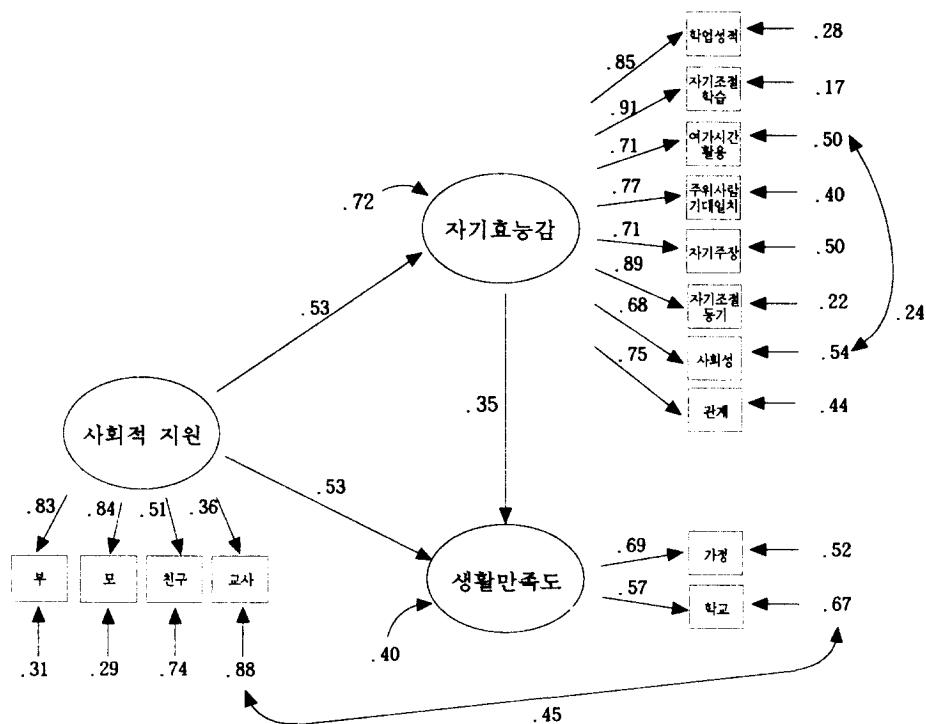


그림 3. 농촌 초등학생의 사회적 지원, 자기효능감과 생활만족도의 관계에 대한 검증모형

며, 자기효능감을 통한 간접효과를 포함하는 전체 효과 또한 유의한 사실에 기초한다.

이러한 결과는 그 동안 사회적 지원과 건강의 관계를 지적한 선행연구들(Bond, 1991; House 등, 1988; Kim, 1996; Lumsden, 1984; Triandis 등, 1988)과, 사회적 지원과 특히 생활만족도의 정적 관계를 밝힌 결과들(김의철·박영신, 1999; 김의철·박영신·곽금주, 1998; 박강수, 1999; 손정기, 1999)과 일치하는 것이다. 나아가서 이 연구에서의 결과는, 사회적 지원과 생활만족도간의 관계가 의사관계(spurious relation)나 단순한 상관관계(correlation)가 아니고, 직접적인 중요한 인과관계(causal relation)에 있음을 분명히 확인해 주고 있다.

이와 같이 사회적 지원이 생활만족도의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력이 높은 변인으로, 개인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주위의 의미있는 사람들로부터의 정서적이고 정보적인 지원이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개인의 생활만족도에서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결과이다.

둘째, 사회적 지원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매개변인으로 자기효능감의 역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자기효능감이 매개변인으로서의 중요성은, 자기효능감의 간접효과가 도시와 농촌자료 모두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에 기초한 것이다. 이는 그 동안 본 연구자들의 연구에서 중다회귀분석하였을 때, 부모지원은 생활만족도 변량의 21%를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변인이고, 교사지원도 의미있는 예언변인으로 투입되었으며(김의철·박영신, 1999), 또한 부모의 지원은 가정생활만족도를 약 30%, 교사의 지원은 학교생활만족도를 약 20% 설명하는 가장 예언력있는 변인이라는 결과들(김의철·박영신·곽금주, 1998)에 대한 해석을 보다 정교하게 해 줄 수 있다. 이

러한 설명변량 속에는 사회적 지원만이 아니라 자기효능감이 매개변인으로서 간접효과를 갖고 있을 개연성이 있다. 즉 충분한 사회적 지원은 자기효능감을 높이고, 높아진 자기효능감은 생활만족도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는 사실이다.

사회적 지원은 생활만족도 뿐만 아니라, 자기효능감에 대해서도 직접적 효과를 갖는 중요한 변인으로 확인되었다. 이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사회적 지원의 자기효능감에 대한 직접적인 효과가 도시와 농촌자료 모두에서 매우 크며, 사회적 지원을 많이 받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음을 알 수 있다. Bandura(1997)도 자기효능감이 격려나 칭찬과 같은 언어적 설득에 의해 형성된다고 보므로써, 사회적 지원의 중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김의철과 박영신(1999)에서 부지원 모지원 친구지원 교사지원이 자기효능감의 8개 하위변인들과 모두 정적인 상관을 보이고, 자기효능감 8개 하위변인 모두에 대해 부모지원이 가장 설명력이 높은 예언변인으로 확인된 결과와도 관련된다.

이 연구에서도 사회적 지원과 자기효능감의 8개 하위변인간의 상관관계가 모두 정적인 관계를 보이고 있으나, 사회적 지원은 자기효능감의 하위변인 중에서도 특히 관계효능감과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회적 지원이 자기효능감에 대해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공변량구조분석의 결과와 결부하여 볼 때, 주위사람들로부터의 사회적 지원을 많이 받을수록 관계효능감이 높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생활만족도 수준의 결정에 있어 자기효능감은 의미있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 연구에서의 결과에 의하면, 도시와 농촌자료 모두에서 자기효능감은 생활만족도에 대한 직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자기효능감이 높은 초등학생일수록 생활에서 만족하는 정도가 높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Bandura(1997)도 자기효능감이 우울증

이나 기타 건강과 관련된 행동특성과 관련되어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김의철·박영신과 곽금주(1998)의 연구에서도, 관계효능감이 전반적인 생활만족도를 24% 설명하는 가장 예언력 높은 변인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주위사람들의 사회적 지원 중에서도 초등학생의 경우는 특히 부모로부터의 지원이 중요하다는 사실이다. 이 연구 결과에 의하면, 도시와 농촌 자료 모두, 부지원과 모지원의 SMC(중다상관자승) 값이 친구지원이나 교사지원의 값보다 크게 나타나며, λ값도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초등학생이 지각하는 주위로부터의 사회적 지원은, 친구나 교사보다 부모의 사회적 지원에 의해 설명되는 정도가 높으므로, 부모의 사회적 지원이 상대적으로 더 좋은 측정변인임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실로부터, 초등학생 시기에 특히 부모로부터의 정서적 정보적 경제적인 지원을 충분히 받는다고 지각하는 것은 생활만족도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토착심리학적 접근방법에 의한 본 연구자들의 최근 연구결과들과도 일치한다. 사회적 지원으로서 부모지원의 중요성은 생활만족도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인생에서 과거의 성공(김의철·박영신, 1998a)이나, 미래의 성취(박영신·김의철, 1999 예정)를 위해서도 가장 중요한 것으로 부각되었다. 또한 스트레스 대처(김의철·박영신, 1997)를 위해서도, 부모가 제공하는 지원은 중요하였다.

넷째, 생활만족도 형성요인으로서 사회적 지원과 자기효능감의 영향은 지역간 차이가 없으며, 도시와 농촌지역 초등학생들이 동일한 형성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이 연구에서 설정한 사회적 지원 자기효능감과 생활만족도의 관계에 대한 인과모형을 검증한 결과는, 외생변인과 내생변인들간의 구조경로에 대한 직접효과와 간접효과 및 전체효과가 도시와 농촌에서 거의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따

라서 도시나 농촌지역에 관계없이, 사회적 지원과 자기효능감은 초등학생의 생활만족도 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인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이 연구에서 도시와 농촌지역 초등학생의 사회적 지원, 자기효능감, 생활만족도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는 의미있는 차이가 있었으며, 도시 초등학생이 농촌 초등학생보다 모든 변인에서 높은 평균을 보이므로써, 사회적 지원도 많이 받고 자기효능감도 높으며, 생활만족도도 높았다. 한국 중학생을 대상으로 분석한 김의철·박영신과 곽금주(1998)의 연구에서도 도시와 농촌 학생은 사회적 지원 자기효능감 및 생활만족도에서 의미있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도시 초등학생이 농촌 초등학생보다 평균적으로 사회적 지원을 많이 받고 자기효능감이나 생활만족도도 높으므로 지역차가 있으나 그것은 변인들의 지역간 평균차이를 의미하며, 생활만족도 형성에 대한 사회적 지원과 자기효능감의 인과관계에서는 지역에 무관하게 동일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변인들을 포함하여 인과모형을 정교하게 하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는 환경변인으로 사회적 지원과, 심리를 측정하는 매개변인으로 자기효능감 및, 행동특성변인으로 생활만족도만을 다루었으나, 청소년의 심리 행동적 특성의 형성에 대한 모형(김의철·박영신, 1999)에서 다루고 있는 다양한 변인들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예컨대 청소년의 생활만족도와 관련하여 스트레스, 학업성취, 일탈행동 등을 고려하여 볼 수 있다. 스트레스와 생활만족도는 부적 관계(김묘성, 1997 $r = -.35$; 송대현·이종목과 박한기, 1988)로서, 높은 스트레스는 낮은 생활만족도와 관련되었다. 박영신과 김의철(1998)의 분석 결과, 학업성취도가 낮은 집단이 높은 집단보다 생활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청소년의

생활만족도 수준을 결정하는 데 학업성취도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황정규(1997)의 연구에서 생활만족도와 일탈행동은 부적 관계를 나타내므로써, 생활만족도가 낮은 청소년이 더욱 일탈행동을 많이 하였다. 이러한 결과들과 일치하여, 김의철과 박영신(1999) 김의철·박영신·곽금주(1998)의 연구에서, 생활만족도가 높을수록 학업성적이 높고 여가활동을 건전하게 하며 심각한 일탈행동은 적게 하였다. 반면에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사소한 문제행동이나 심각한 일탈행동을 더욱 많이 하였다. 이러한 청소년의 심리 행동특성 변인 외에, 환경변인으로서 부모 친구 교사의 사회적 지원과 같은 긍정적인 면 뿐만 아니라, 갈등과 같은 부정적인 측면들도 추가하여 인과모형을 정교화해 나가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 초기에 해당하는 초등학교 6학년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는데, 청소년 중기의 중 고등학생과, 대학생 등 청소년 후기집단의 심리 행동특성에 대한 인과모형분석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발달적 특징에 따라 똑같은 변인들이라 할지라도 변인간의 인과구조가 달라질 수 있으며, 영향력의 정도에 큰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실제적으로 의미있는 변인의 구성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인과모형의 적합도 검증과 효과분석을 통해, 한국 청소년문화 형성요인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분석이 가능하리라 본다. 또한 생활만족도는 청소년 뿐만 아니라 성인에게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앞으로 성인의 생활만족도 형성배경에 대한 연구도 요구된다.

참 고 문 헌

- 곽금주(1995). KLSSA검사에 의한 청소년기 삶의 만족도.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2(1), 5-16.
권혁호(1998). 자기효능감과 귀인양식, 정신건강, 학

- 업성취도와의 관계: 중학생을 중심으로.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묘성(1997). 학업성취집단별 스트레스와 통제부위 신념과의 관계.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의철 · 박영신(1997). 스트레스 경험, 대처와 적응 결과: 토착심리학적 접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1), 96-126.
- 김의철 · 박영신(1998a). 한국인의 성공의식과 귀인양식: 토착심리학적 접근. *교육심리연구*, 12(2), 51-84.
- 김의철 · 박영신(1999). 한국 청소년의 심리 행동특성의 형성: 가정, 학교, 친구, 사회 영향을 중심으로. *교육심리연구*, 13(1), 99-142.
- 김의철 · 박영신 · 꽈금주(1998). 한국 청소년의 생활만족도와 스트레스 형성요인: 도시와 농촌 청소년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3(1), 79-101.
- 박강수(1999). 부모 - 자녀관계와 중학생의 심리적 행동적 특성: 성취동기, 생활만족도, 학업성취도, 일탈행동을 중심으로.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영신(1997). 청소년 자기효능감과 통제부위신념의 형성요인. 안귀덕 · 황정규 · 김의철 · 박영신. *한국청소년문화: 심리 - 사회적 형성요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연구논총 97-8.
- 박영신 · 김의철(1998). 청소년 비행과 성취행동: 가정환경, 귀인양식, 건강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4(1), 29-53.
- 박영신 · 김의철(1999, 예정). 실패와 미래성취에 대한 의식: 토착심리학적 접근. *한국교육학회*, *교육학연구*, 28,
- 손정기(1999). 부모 - 자녀관계와 초등학생의 성취동기, 생활만족도, 학업성취도, 일탈행동의 관계.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대현 · 이종목 · 박한기(1988). 직무 스트레스와 직무만족과의 관계에 대한 상관관계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산업 및 조직*, 1(1), 123-146.
- 송종용 · 원호택(1988). 스트레스 상황에서 사회적 지지가 성취파제의 수행과 불안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7(1), 21-30.
- 원호택 · 이민규(1987). 고등학교 재학생들의 스트레스.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6(1), 22-32.
- 이경희(1995). 청소년의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이순묵(1990). 공변량구조분석. 서울: 성원사.
- 이종목(1990). 여성근로자의 직무스트레스와 조직행동과의 관계에 관한 공변량 구조모형.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조선배(1996). LISREL 구조방정식모델. 서울: 영지문화사.
- 황정규(1997). 한국 청소년의 생활만족도, 심리적 건강, 신체 건강: 심리 - 사회적 형성요인. 안귀덕 · 황정규 · 김의철 · 박영신. *한국 청소년문화: 심리 - 사회적 형성요인*. 연구논총 97-8.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Bandura, A.(1986). *Social foundations of thought and action: A social theory*. N.J.: Practice-Hall.
- Bandura, A.(1995). Manual for the construction of self-efficacy scales. Unpublished manuscript, Dept. of Psychology, Stanford University, USA.
- Bandura, A.(1997). *Self-efficacy: The exercise of control*. New York: W. H. Freeman & Company.
- Bentler, P. M., & Bonett, D. G.(1980). Significance tests and goodness of fit in the analysis of covariance structures. *Psychological Bulletin*, 88, 588-606.

- Bond, M. H.(1991). Chinese values and health: A cultural-level examination. *Psychology and Health: An International Journal*, 5, 137-152.
- Cohen, S. & Wils, T. A.(1985). Stress, social support, and the buffering hypothesis. *Psychological Bulletin*, 98, 310-357.
- Cowen, E.(1991). In persuit of wellness, *American Psychologist*, 46, 404-408.
- Diener, E.(1984). Subjective well-being. *Psychological Bulletin*, 95, 542-575.
- Fassinger, R. E.(1987). Us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n counseling psychology research.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4(4), 425-436.
- Graig, E.(1993). Stress as a consequence of the urban physical environment. Goldberger, L. & Berntz, S. *Handbook of stress: Theoretical and clinical aspects*. 2nd ed. New York: The Free Press.
- Hirsch, B. J., & Reischl, T. M.(1985). Social networks and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A comparison of asolescent children of a depressed, arthritic, or normal parent.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94, 272-281.
- House, J. S., Landis, K. R., & Umberson, D.(1988). Social relationships and health. *Science*, 241, 540-545.
- Jacobson, D. E.(1986). Types and timing of social support.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27, 250-264.
- Kim, U.(1996). *Illness behavior pattern pf Korean Nationals, Korean-Canadians, Korean-Americans, and Korean-Japanese*. 한양대학교 정신건강연구소. 제30차 정신건강연구소 학술 세미나. 주제: 질병행동과 정신건강.
- Lumsden, D. P.(1984). On assessing and ameliorating the "costs" of social life. In D. P. Lumsden(Ed.), *Community mental health in action*. Ottawa: Canadian Public Health Association.
- Triandis, H. C., Bontempo, R., Villareal, M. J., Asai, M., & Lucca, N.(1988).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Cross-cultural perspectives on self-ingroup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 Social Psychology*, 54, 323-338.
- Wills, T. A.(1990). Multiple networks and substance use. *Journal of Social & Clinical Psychology*, 9, 78-90.

Structural Dynamics of Life-Satisfaction and its Relationship to Social Support and Self-Efficacy: Analysis of Primary School Students

Young-Shin Park¹, Uichol Kim², Young-Hee Kim¹ and Byung-Ki Min¹

¹Department of Education, Inha University · ²Department of Psychology, Chung-Ang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d the relationship among self-efficacy, social support, and life-satisfaction among 1,474 students(999 students living in a urban area and 475 students living in rural areas). Using the covariance structure modeling(LISREL 8), the relationship among three constructs were investigated. There was a significant direct effect of social support on life-satisfaction and indirect effect through self-efficacy. Also, social support had a significant direct effect on self-efficacy and self-efficacy had a direct significant effect on life-satisfaction. In other words, those students who received more social support from parents, teachers, and friends were likely to score higher on self-efficacy, and those students who scored higher on self-efficacy were likely to score higher on life-satisfaction. Social support and self-efficacy are important predictors of life-satisfaction and self-efficacy was an important mediating factor of social support and life-satisfaction. Although students living in urban areas were likely to score higher on social support, self-efficacy and life-satisfaction, the overall covariance structure model was the same for students living in the urban area as well as students living in rural areas.